

이한열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 우리 모두 군부독재타도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전진, 또 전진하자 -

지난 7월 5일 이땅의 민주제단에 또 하나의 젊은 목숨이 바쳐졌다. 진정한 민주화와 민족통일과 인간해방을 위하여 고민하며, 그 고민의 결과를 성실하게 행동으로 실천해 온 한 젊은이가 군부독재정권의 살인죄루탄에 의해 너무도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것이다.

22살의 한창 피어나는 꽃다운 나이에 군부독재타도의 현장에서 산화한 이한열, 그의 죽음은 부모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한을 남겨 주었고, 우리에게 피눈물나는 슬픔과 군부독재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심어주었다. 누가 이한열을 죽였는가, 누가 막 피어오르려는 그 꽃봉오리를 그렇게도 무참하게 짓밟았는가!

오늘 우리는 이한열 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가슴 찢어지는 슬픔과 분노를 하나로 모아 그의 영정 앞에 군부독재타도와 민주정부수립을 향해 전진할 것을 하나의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지금 이시간 이한열 군을 죽인 군부독재정권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민주화를 운운하며 장기집권음모의 획책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1980년 미국의 승인아래 광주학살로 정권을 탈취한 후, 고문살인, 강간, 용공조작, 불법 연행·폭행·구금·구속 등의 온갖 폭력과 대형 부정부패로 권력을 유지해 온 반민주적, 반민족적, 반민중적 군부독재정권은 미국을 등에 업고 전 매스컴을 동원하여 군부독재정권의 계승자 노태우를 소위 '영웅'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전두환과 노태우를 포함한 군부독재정권은 정권의 정통성도, 국민의 대표성도, 정치의 도덕성도 없는 광주학살의 원흉, 고문살인의 원흉, 죄루탄살인의 원흉으로 온 국민의 공적일 뿐이다.

따라서 군부독재정권은 마땅히 타도되어 사라져야 할 정권이며, 그러한 군부독재정권과의 타협이나 협상으로는 결코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해 낼 수 없다. 오직 군부독재타도만이 진정한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지난 1980년의 경험이 검증해 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군부독재정권이 거짓 민주화를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지금, 아직도 고문과 용공조작이 행해지고 있고, 아직도 감옥에는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고, 아직도 거리에는 포르말린, D.D.T. 청산가리 등이 포함된 인마살상용 최루가스가 자욱히 깔려있고, 아직도 농민들은 빛과 저곡가와 수입농산물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직도 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고, 아직도 삶의 터전을 빼앗긴 철거민들은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이땅의 모든 부정과 불의와 억압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민주화의 의지에 타오르는 모든 국민의 열기를 하나로 모아 강고하게 단결하여 군부독재타도의 싸움에 총매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참 세상을 건설해 내야하며, 이것이 바로 이한열 군을 비롯한 모든 민주열사의 죽음에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한열 군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그의 죽음을 통해 군부독재정권의 반인간적 범죄상과 허구를 재확인하면서 모든 애국시민,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의 민족·민주세력과 하나의 모습으로 군부독재타도의 선봉에 설 것임을 다짐한다.

자, 우리 모두 총결기하여 군부독재타도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전진, 또 전진하자!

1987년 7월 8일

서울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